

## 축 사



차 흥 봉 (車 興 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일 양국의 사회복지 지도자들이 ‘가족지원과 소셜워크 :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기능의 강화’를 주제로 제9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김대근 숭실대학교 총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을 주최한 유수현 실행위원장과 이토 이사오 유니벨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기조강연을 해주실 문창진 CHA의과학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장과 오하시 켄사쿠 일본사회사업대학 전 학장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고향이며, 삶과 보람의 원천입니다.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삼대를 한 가족으로 여기는 가족공동체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효’의 가치관이 점점 약화되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흐트러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기능이 약해지고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건강한 가정의 존립과 육성에 중점이 두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본질적 성격상 국가의 복지정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의 본질은 인간 사랑이고, 사회복지의 정책 목표는 인간 사랑에 바탕을 둔 나눔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아끼고 돕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

린이시기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쳐 일깨우고, 가정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핵심가치이자 인간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인 ‘효’의 규범을 현대적 생활원리로 재정립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를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학문적 연구영역과 실천 영역 모두에서 가장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 사회복지 지도자들이 미래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자리를 함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를 많이 공부하였으며, 일본의 제도로부터 배운 지식이 지금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한·일 양국 간의 학술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辞



車 興 奉 (チャ フンボン)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日韓両国の社会福祉の指導者が「家族支援とソーシャルワーク ―家族のための地域社会機能の強化―」をテーマに第9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開く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ことだと思います。

本日、席を共にされた林采民保健福祉部長官と金大根崇實大学校総長、そしてシンポジウムを主催された伊藤勲ユニバーサル財団理事長と柳秀鉉実行委員長に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基調講演してくださる文昌珍CHA医科学大学校保健福祉大学院長と大橋謙策日本社会事業大学前学長をはじめとした発表者とパネラーの皆さまに感謝申し上げます。

古今東西を問わず、家庭は人間の体と心の故郷であり、生と生き甲斐の源泉であります。わが韓国は伝統的に「孝」の重要性を強調してきており、三代を一家族と感ずる家族共同体を尊重してきました。しかし急速な産業化と核家族化で「孝」の価値観が次第に弱くなり、我々固有の美風良俗が乱れていくという残念な現実を経験しております。それと共に家庭の機能も弱くなり、経済的な困難の増加で家庭の解体まで発生しているのが今日の現実であります。

社会福祉政策は、健康な家庭の存立と育成に重点を置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かし社会福祉の本質的な性格上、国家の福祉政策がすべてではありません。社会の構成員の認識と理解がはるかに重要であります。社会福祉の本質は人間愛です。社会福祉の政策目標は、人間愛に基づいた分かち合い共同体社会を作ることです。人間愛を実践し、分かち合い共同体社会を作るためには、社会の構成員すべてが、お互いを大切にし、助け合う共同体意識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子供の時から人間の尊厳性を教え、悟らせて、家庭を健やかに維持する核心価値であり、人間性を豊かにする貴重な我々の「孝」の規範を現代的な生活原理として再定立し、我が地域社会を社会連帯性に基づいた共同体に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韓国と日本は地球上で最も近い隣国であり、学問的な研究領域と実践領域のすべての

面で同じように発展しております。従って日韓両国の社会福祉指導者が未来の社会福祉の発展のため一堂に会することは非常に意義深いことであるでしょう。私も個人的に日本の社会福祉制度を勉強し、日本の制度から学んだ知識が今も私に大きな助けとなっ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き、感慨深いものがあります。本日のシンポジウムが韓日両国間の学術交流と協力増進のための大きな契機となることを願い、皆さまの家庭に健康と幸せが常に共にあらん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